

캘리포니아 주 Proposition 65관련 현황

로스앤젤레스지사

□ 개 요

- 1986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주법으로 유해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한 투표진행으로 통과된 규제
 - 캘리포니아 환경보호단체(Cal/EPA)에 속한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관리
-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체계에 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화학품에 사람들이 노출되기 전에 경고를 해야 함
 - 1987년 발표 이후 현재 약 800개 이상의 화학품이 리스트에 올라있음
 - ※ 매년 화학품리스트를 재정비함
 - 집, 회사 등 사람들이 화학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뿐 아니라 집안용품, 농약, 식품, 의약품, 염색약품, 용제(solvents) 등에 섞여있거나 재료 등 또한 포함되어 있음. 그 외에도 공사 및 제조시에 사용되는 화학품 혹은 자동차 배기 같은 화학처리 제품 등도 포함됨
 - ※ 10명 미만의 직원을 갖고 있는 사업체 및 정부기관은 Proposition 65에 속하지 않음
 - 가장 최근인 2016년 5월, 캘리포니아는 Biphenol A(BPA)를 경고를 부착해야 하는 화학품 리스트에 첨가. BPA가 포함된 패키징을 사용하는 식품 및 제품은 경고 사인을 부착해야 함
- Proposition 65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사무실(California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주로 집행하지만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혹은 인구가 750,000명이 넘는 시의 검사(city attorney)도 집행할 수 있음
 - 그 외에 공익에 의해 개인이 소송을 통해 Proposition 65를 집행할 수 있음



□ 김 Proposition 65관련 현황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현지유통 판매 중인 조미김의 안전성 검사결과 “납”의 주정부 기준초과로 경고메세지 부착 및 대책요구

- 납 성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재검사를 통해 주정부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으면 proposition 65 경고표기를 해야 함

※ 주 정부 납 섭취기준 : 0.5ppm(성인 1인의 하루 납 성분 섭취가능 최대치)

○ 2016년 4월 기준, 업체들 자체적으로 각 업체의 방침에 따라 합의하여 경고문 부착판매하거나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일부업체는 국내 및 현지연구소를 통해 재검사결과를 주정부에 제출

○ 미국 마켓 내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김이 아닌 타국산 김의 경우 이미 처음부터 문구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어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부착하여 판매 중.



김스낵(YamaMotoYama)



김스낵(YamaMotoYama)



김스낵 경고문구



김스낵(YamaMotoYama)



김스낵(YamaMotoYama)



김스낵 경고문구

□ 김 외 타 식품관련 업체 대응현황

○ 마켓 내에 관련제품 섹션에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거나 제품자체에 부착되어 있음



Trade Joe's 마켓 수산물 섹션 경고문구

○ 많은 식품업체 중 포장에 문구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회사 웹사이트 내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proposition 65 경고문구가 무엇인지 왜 부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함

- 소비자들에게 경고문구가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거나 proposition 65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인지시킴

웹사이트 내 관련 질의응답	웹사이트 내 prop 65관련 설명

ocean's

HALO

products

cause

shop

buzz

the fastest growing crop in the world, and we're proud to create a snack made from a food that's good for us and our planet.

What is Cal Prop 65?

Cal Prop 65 is California's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Companies are required to place a warning label on any product they sell within California if it exceeds the level that the State has established as risk free for a list of over eight hundred chemicals. These limits are specific to the state of California and are drastically lower—up to 150 times in some instances—limits that 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indicated as safe for consumption.

Why do certain retailers label Ocean's Halo Seaweed Snacks with the Cal Prop 65 warning label? Are Ocean's Halo Seaweed Snacks safe to eat?

Yes! Our snacks are safe, nutritious, and delicious. Plus, Ocean's Halo Seaweed Snacks are USDA-Certified Organic, Non-GMO Project Verified and use only the finest, sustainably harvested seaweed and other top-quality ingredients. Our manufacturing facility is one of the largest producers of USDA Organic Seaweed in Korea. Additionally, our seaweed supplier is LRQA certified, the gold standard for quality control systems. Some retailers within the state of California choose to label all seaweed products (as well as other ingredients like ginger and brown rice) with the Cal Prop 65 label because seaweed has been known to exceed the level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has established as risk free for some compounds that are found on a list of over eight hundred chemicals, many of which are naturally occurring. The compounds that exceed the Cal Prop 65 safe harbor limits in seaweed are absorbed from the ocean and include Arsenic and Cadmium. We conduct the Prop 65 Testing with each harvest of Organic Seaweed, to ensure that we know how much, if any, of these Prop 65 compounds are in our products.

스낵업체 웹사이트 prop 65관련 설명

○ 스타벅스 및 커피업체들 Proposition 65관련 소송

- 2010년도에 스타벅스, 던킨도넛, 시애틀베스트커피, 홀푸드마켓 등 90개의 커피판매업체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커피 내의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acrylamide)가 기준보다 높아 캘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65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
- 2010년 제기한 소송은 2014년 공판에서 스타벅스는 졌고 공소신청을 하였으나 제 2 항소구(Second Appellate District)에서 청원서를 기각함



캘리포니아 스타벅스 내 prop 65 경고문구

□ 시사점

- 최근 proposition 65의 안내문구관련한 소송 및 소송 전 안내문을 받는 식품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proposition 65의 특성상 매년 화학물질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국식품관련 업체들 중에선 현재 김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산 김의 납성분 함유로 인한 소비자단체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소송관련 안내메일을 받은 상태이며 주시 받고 있는 상황
 - 한국산 식품의 경우, 김으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변호사들의 식품시장을 타겟으로 한 소송이 지속되고 다른 식품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가장 최근에 BPA가 prop 65의 안내가 필요한 화학품 리스트에 오르면서 플라스틱 및 캔식품의 안내문구 부착이 불가피해져서 식품시장 내에 안내문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캘리포니아 주는 다민족이 주거하고 있고 여러 종류 특히 에스닉식품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국식품 수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 중 한군데임.
 - 한 예로 미국 내 판매되는 김의 30%정도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됨.
- 수출식품 특성상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패키징을 할 경우 미국 전역으로 같은 패키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전체 내에서 prop 65 안내문을 보고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음.